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 B·L·O·C·A·L·L·Y



2019 AUTUMN  
VOL. 02



## COVER STORY

40계단부터 보수동 책방골목까지-  
부산의 수많은 삶과  
이야기가 교차하는  
이곳은 바로 원도심입니다.  
브로컬리 가을호에서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낭만적인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B·L·O·C·A·L·L·Y** 2019 AUTUMN VOL. 02

한성1918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브로컬리 투어**  
04-07

B로컬러가 제안하는 동네 여행 코스, 브로컬리 투어를 따라 다 같이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한바퀴 돌아볼까요?



**3번 테이블**  
08-09

주인, 손님, 음식과 함께한 식당의 세월, 3번 테이블에서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작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에브리바다**  
10-13

바다를 빼놓곤 논할 수 없는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다



**BUSAN NER**  
14-15

From Busan, To Busan. 안과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부산너의 단상. 부산, 너!



**B 스켓**  
16-17

매 호 가볍게 즐기는 비스켓 한 조각, 여러 장르 예술가들의 일상을 좇아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들을 열어봅니다.



**OO씨의 이중생활**  
18-19

퇴근 후 가면을 벗고 자유를 얻는 시간. 평범한 이웃의 이중생활을 만나봅니다.



**날아라 동아리**  
20-21

일상에서 예술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문화 동아리를 응원합니다.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날아라 동아리!



**보라카이**  
22-23

한성1918 생활문화센터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함 보라카이~

**PM's LETTER**

**#1 부산 로컬리(BUSAN LOCALLY)**

건강채소 BROCCOLI처럼, 신선한 LOCALITY의 맛을 담아내기 위해 B·L·O·C·A·L·L·Y가 태어났습니다. 가을호는 여름 창간호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농익은 브로컬리를 보여드리고자 늦가을에 선보입니다. 사계절 중 가장 짧은 듯한, 그래서 더욱 부산스러운 가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 이번 가을호의 중심 장소로는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동네 가이드 B로컬러와 함께하는 <브로컬리 투어>에서는 중앙동과 동광동을 거쳐 대청동과 보수동을 가로지르는 1일 투어를 떠나보고, <3번 테이블>에서는 언제나 옳은 '치님(치킨을 신성화 시킨 단어)'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3** 부산의 모든 바다, 그리고 모두의 바다. 3대째 수산업을 이어온 이에게 바다는 어떤 모습과 의미일까요? <에브리바다>에서는 수산업 종사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희님의 바다를 소개합니다.

**#4** 너와 나 우리 모두, 부산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산 사람입니다. 5만 5천 명이 넘는 외국인인과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부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항상 부산을 그리워합니다. <BUSAN NER>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부산너와 싱가포르로 간 부산너를 만나봅니다.

**#5**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BSCATEGORY)를 살피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비스켓>에서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레게 밴드DJ로 거듭난 어느 축제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복면달호'를 소개하는 <OO씨의 이중생활>은 평일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주말이 되면 북카페 주인이자 문화기획자로 '변신'하는 네 명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6**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는 삶의 향기는 과연 어떨지, 이번 <날아라 동아리>에서는 '얼후'를 연주하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나봤습니다. 브로컬리는 일상의 아티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날아라 동아리>의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7** 100년 넘는 건물에 귀신(망자)이 산다고 조선 팔도를 떠돌다 나귀를 담보로 부산 어느 곳에 자리 잡은 하층기 귀신님(?)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궁금하면 <보라카이>!

**#8** 동네, 지역주민 그리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가을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번호가 보다 널리, 많은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NOTICE**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옮겨올에 발간될 브로컬리 3호에서는 OO씨의 이중생활과 부산너 코너의 소재 제보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직접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OO씨의 이중생활 제보하기**  
특별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 색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등 모든 장르의 피짜들을 제보해 주세요.



**부산너 기고 안내문 보기**  
\*The BUSANNER foreign language version guide is available on the website. (English, 中文, 日本語, Русский, español, العربية)  
문의 051-257-8035



**별지 B·L·O·C·A·L·L·Y TOUR**

브로컬리 투어의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의 주요 스팟을 한눈에 볼 수 있는 MAP. 창간호의 광안동을 시작으로 동네의 지도를 모으고 이어 부산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브로컬리를 지켜봐주세요!



중양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40계단 아닐까. 이곳은 축제, 공연, 플라마켓 등으로 1년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는 문화테마관광거리이다.

## B 로컬러가 추천하는 중양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글 양화니 핑크로더 대표 사진 하영문, 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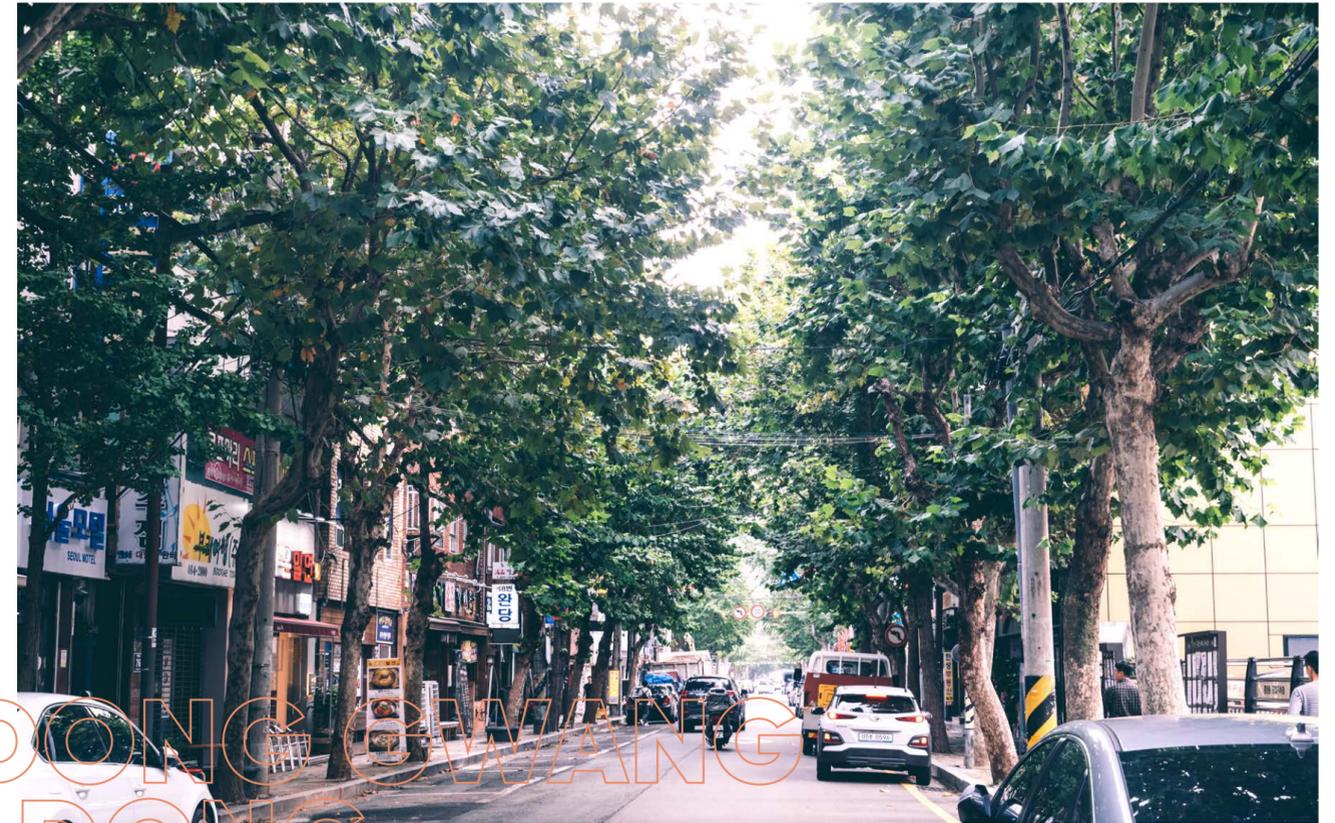
오전 9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40계단에 무리지어 모인다. 땀투기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40계단을 배경으로 저마다 포즈를 취한다. 중양역까지 연결된 골목을 따라 출근길 직장인을 상대하는 카페와 분식집은 발 디딜 틈이 없다. 40계단테마관광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의 이른 방문 덕에 저렴한 맞춤형 기념품으로 무장한 동네 문방구와 철물점까지 북적인다. 관광객들이 빠지고 나면 중구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젓먹이는 엄마, 지게에 누워 쉬는 노동자 등 테마거리의 조형물을 열심히 닦으신다. 덕분에 길가의 조형물들은 매일 말끔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는다. 그 옆 편의점 앞과 철물수 아래 벤치는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시는 어르신들의 아지트다. 어르신들은 버려진 책상 상판을 돛자리 삼아, 사람 구경에 여념이 없으시다. 테마거리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밥집과 작은 카페들은 새벽부터 시작한 재료 손질을 끝내고 문을 열기 시작한다. 중양동 거리에 구수한 밥냄새와 커피향이 가득 찬다. 그러곤 젊은 작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거리에 액세서리와 인형을 꺼내놓는다. 중양동 골목에 플라마켓이 열렸다는 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뜻한다.



중양동의 골목은 또 다시 북적이기 시작한다. 유니폼을 입은 직장인들이 무리지어 서성인다. 매일 매일 똑같은 고민, 점심 메뉴 선택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오래된 가게들의 관록이랄까. 너무도 다양한 메뉴 때문에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결정 장애에 시달린다. 가성비 좋은 전주식당 돌솥밥, 전통의 대궁삼계탕과 할매누지볶음, 이색적인 갠쟁카레 커리와 대나무집 닭볶음탕을 비롯해 국제상인 찜뽕, 중앙모밀 매일국수에 일식 전문 분침치와 상짱 튀김, 가장 대중적인 부랑 돼지국밥과 가정식 백반, 바쁜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중양동 골목은 매혹적인 음식들로 넘쳐난다. 일찍 자리를 잡지 못하면 길에서 10~20분을 기다리는 건 예사. 때론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길을 나서면서 40계단 플라마켓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 JUNG ANG-DONG



## DONG GWANG-DONG

중양동 일개미(직장인)들이 점심이면 쏟아져 나오는 식당가 거리는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매주 화, 목요일 점심을 전후로 펼쳐지는 플라마켓은 아기자기한 소품과 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하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면, 기어코 액세서리 하나를 집어 들고야 한다. 지름신과 포만감을 힘겹게 떨쳐낸 후, 근처 카페 앞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는 나와 같은 전쟁을 치른 동지들, 또따또가 입주 작가 및 여러 독립 작가들과 눈인사를 나눈다.

최근 중양동 골목은 여러 문화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린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점심, 저녁으로 음악공연과 체험프로그램들이 모듬이극장에서 열린다. 이는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예술참여행사로, 얼마 전엔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40계단예술교육영화제가 열리기도 했다. 40계단을 배경으로 설치된 스크린과 야외 관람이 주는 특별한 경험이 제법 운치를 느끼게 한다. 대청로 큰길만 건너면 만나는 갤러리 604와 한성1918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세미나가 열리고, 대표적인 부산항토사학자인 주경업 선생님이 운영하는 다락방의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이제 중양동 골목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중양동 곳곳엔 건물을 개조한 멋들어진 카페와 문화복합공간이 있다.



40계단 앞 테마거리에서는 주 2회 베품시장이 열린다. 봉제인형, 액세서리, 인근 또따또가 작가들의 작품 등이 진열되어 있어 왕래하는 이용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빈 점포 및 사무실을 매입해 작업실로 제공하고 있다.



영화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련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동광동에 있다.



대청동과 보수동 사이 언덕엔 예스러운 가게들이 보인다. 레트로풍의 힙한 간판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진다.

직장인이 빠져나가 한산할 것만 같던 주말의 중앙동 골목은 근현대 역사탐방에 나선 아이들의 발걸음이 대신 메운다. 아이들은 중앙동 40계단 문화관부터 동광동 백산기념관과 부산근대역사관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도보로 이동하며 선생님의 설명을 수첩에 받아 적는다. 옛 초량왜관 터와 부산의 오랜 랜드마크인 용두산공원을 비롯해, 수탈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부산근대역사관, 영화와 첨단기술의 향연이 가득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세금과 무역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부산세관박물관 등 중앙동과 동광동은 다양한 역사, 전시, 체험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올해 초에 문을 연 독립서점 '여행하다'와 남포동에서 이주해 온 '문우당서점' 등이 이 지역에 새로이 자리 잡아, 중앙동의 대표적인 인문학공간 '백년어사원'과 더불어 문화와 지식의 깊이를 한층 더한다.



# DAE CHEONG -DONG

대청동 색채마을로 가는 길목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골목들이다.

인근의 대청동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역사적인 종교건축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교회와 성당, 절 등 대청로 주변에 위치한 종교건축물은 6·25전쟁 발발과 피란으로 의지할 곳이 없던 피란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던 곳이다. 특히 성공회주교좌 성당은 성당 내부까지 기거이 내어주며 피란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종탑에도 오밀조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전쟁 이후엔 자연스럽게 각자의 고향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부산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많았다. 성당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봉재수업을 열기도 했는데, 정착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주교좌 성당이었던 중앙성당도 대청동의 대표적인 종교건축물로, 특히 이곳에는 파이프오르간이 있어 세계적인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들의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드라마 '도깨비' 속 공유와 김고은이 나타날 듯한 이곳은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보수동 책방골목에서는 책내음 가득한 감성여행을 떠날 수 있다.



부산 경남권에서 유일한 전통 기계식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중앙성당 뒤로 중구의 랜드마크 부산타워가 보인다.



피란민들이 이주해오면서 산복도로를 끼고 조성된 판자촌들이 즐비했던 시절, 책은 더없이 귀한 물건이었다. 자연스럽게 중고책들은 헌 책방을 통해 유통되었고, 그 책들이 모여들던 곳이 보수동 책방골목이었다. 보수동 일대는 당시는 안 입고 안 먹더라도 자식들은 배워야 한다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기도 했다. 지난날 판자촌 사이사이 천막학교에서 '배워야 산다'던 어린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근래에는 인터넷 서점의 존재로 아날로그식 서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날로그 서점들 사이로 '마이유니버시티'와 같은 독립서점이 생기면서, 기울어가던 보수동

책방골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책방을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책방골목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침 10월 셋째 주 주말(10.19~20)은 책방골목축제가 열리는 시기다.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대한성공회 부산 주교좌 성당은 1924년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돌조 건물로 지어졌다.



비록 지면이지만 중앙동에서 동광동으로, 대청동을 지나 보수동에 이르는 구도심 여정을 끝내고 하니 문득 술 한잔이 그리워진다. 막걸리에 안주 하나 시켜놓고 담소를 나누던 추억이 깃든 곳, 모였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문화와 예술의 사랑방으로 가자. 강나루, 계림, 양산박이 아른거린다. 이 시대 마지막 주모가 있는 부산포나 와인과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경주해관도 좋다. 누군가와 도란도란 모여앉아, 이곳 구도심의 매력을 안주삼아 끝없는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 하고 싶다. ☺

# 일상의 삶, 보통의 음식을 위하여

## 보수동 아닥치킨

글 강희철 문학평론가

사진 하영문



사진첩을 통해 어릴 적 기억을 더듬다 보면, 튀긴 치킨 한 마리를 먹었던 기억은 아버지의 월급날과 나의 생일 때 정도였던 것 같다. 조그만 케이크 하나와 통닭 한 마리가 큰 접시에 수북하게 쌓인 사진을 볼 때면, 일상의 조그만 축제마다 우리가 얼마나 닭요리를 즐겼던가 싶다.

전통적으로 닭은 구워 먹기도 하고 다른 식재료와 같이 간단히 양념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백숙(白熟)으로 물에 푹 끓여 먹는 방식이었다. 끓여 낸 육수에 누룽지나 찹쌀밥 등을 더하면 더 많은 이들이 풍족하고 든든한 식사를 하고, 이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몸을 보양하는 기본까지 들게 했다.

이렇듯 몸을 보양하기 위해 끓여 먹던 닭이 튀겨 먹는 기름진 요리로 변한 것은, 요즘 '1인 1닭' 시대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변화되고 풍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쉽게 기름에 튀겨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닭요리가 이제는 병과 비만을 부르는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닭'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의 일상이 자극적인 맛과 빠르고 쉽게 모든 것을 유통시키는 자본의 경제 논리에 익숙해져, 스스로가 어떤 '경계'를 만들고 지키는 데 많이 무덤덤해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직업의식 없이 확장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이, 돈만 있으면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요식업에 뛰어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요즘 핫한 요리 관련 예능 TV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위생 관념이 없거나 요리 방식의 정량화조차 이루지 못해 찢절매는 수많은 가게들을 접하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요리에 자신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어서 요식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자본의 힘과 프랜차이즈의 명성에 기대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누구나 인정할 뛰어난 맛의 경쟁력보다는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름난 대형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어도 자본의 논리 안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나는 가끔 길을 걷다 내가 자주 가던 곳에서 사라져 버린 간판들과 갑자기 새로 생겨난 간판들을 볼 때면 뭔가 삶의 일부분이 잘려 나간 기분이 들곤 한다. 부산시청이 중구에 있던 1998년 무렵까지 승합차로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올 만큼 성황이었던 집 앞 공탕집이 간판을 내린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난 지금도 그 특별하고 정감했던 공탕 한 그릇을 접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못해 아프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그 공탕집처럼 내 삶이 도려내어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3번 테이블을 소개할까 한다.

내가 3번 테이블의 독자들과 함께 맛을 나누고 싶은 점포는 모든 것이 허물어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오래도록 재개발의 풍파를 견뎌내며 곳곳이 버려온 '아닥치킨'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옛 보수동 3가에 위치해 골목형 아파트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데,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일본식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산 중앙동 40계단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 일본식 건물을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8평 남짓의 작은 크기 때문에 마치 조그만 상냥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보수동이지만 부민동과 인접한 탓에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여느 대학가가 그렇듯 방학이면 발길이 끊겨 한적해진다. 주변 재개발로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주한 탓에 매출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나마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가게를 조금씩 찾는 추세라고 한다. 요즘은 딱 삶을 겨우 지탱할 만큼 이윤이 남는다는 게 사장님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는 10여 년 전 프랜차이즈를 키워 볼 요량으로 형과 함께 '아닥치킨' 사업을 추진, 서울에 2호점을 차리기도 했다. 하지만 맛에 대한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넉넉하지 못한 자본 상황에서 경기불황 심화와 나날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닥치킨이라는 상호가 특정한 비속어를 연상시키는지라 더 인상 깊기도 했는데, 실제 서울에 냈던 2호점이 혐오스러운 상호라는 주민의 신고로 구청에 이를 해명하는 진술서를 보내야 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이 치킨 가게 건물은 총 4층이지만 각 층은 8평이 채 안 된다. 그마저도 위층으로 갈수록 평수가 줄어들어, 손님을 받기보다는 닭을 시즈닝하는 공간, 닭을 저장하는 공간, 개인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굳이 오래되고 낡은 일본식 4층 건물에 창업을 한 이유는 이 건물이 형제의 소유였기 때문이란다. 여러 차례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아닥치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인 영업을 해 온 사장님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평범하지만 진실된 삶의 원칙을 지키는 분이다. 아닥치킨만의 특별한 닭요리법과 주문, 세팅, 재료 손질, 메뉴 개발 등 자신이 홀로 쏟는 정성에 대한 가격을 스스로 책정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바리다매(薄利多賣)의 프랜차이즈 전문점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불평을 들을 때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같은 가격에 두 마리까지 주는 치킨을 마다하고 이 집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전 프랜차이즈 성공을 자신했을 만큼 특별한 닭요리 비법에 있다. 아닥치킨은 여타 치킨가게와 달리 염지(鹽漬: 소금, 질산, 아질산염, 설탕 등을 이용해 고기, 생선, 채소 등을 조미하고 보존하는 방법)하지 않는다. 아닥치킨의 닭은 다양한 향신료와 채소, 고추씨물 등을 잘 배합하고, 덩블링(시즈닝이 잘 배도록 회전통을 이용해 굴리는 방식)하는 수고로움 속에 탄생한다.

'치킨은 역시 오리지널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사장님의 지론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자의 단골메뉴는 크리스피 치킨이다. 밀가루 반죽을 마치 두꺼운 닭껍질처럼 입혀서 튀겨낸 튀김옷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거기에 마요네즈와 우유크림(이외의 배합방식이나 추가재료가 더 있겠으나 사장님만의 비밀사항이라 더 묻지는 못했다)을 섞어낸 소스는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다. 내가 느끼는 이 맛은 술한 어려움과 실패를 견뎌낸 결과일 것이다. 사업 실패와 신용불량,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갖은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연구하며 버틴 성과일 것이다. 쉬운 매뉴얼에 따라 찍어내듯 조리되어 앱을 통해 배달되는 닭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풍미를 느끼게 하는 건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이와 같은 점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프랜차이즈를 밀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이와 같은 풍미를 더 이상 앗아가지는 않기를. 그래서 내 삶의 또 다른 일부가 잘려나가지 않기를. ☺



#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바다

글 김선희 대형선망 성신수산 이사  
사진 김선희 대형선망 성신수산 이사, 하영문



부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나는 바다가 떠오른다.  
여러분은 부산의 어떤 바다가 떠오르는가?  
해운대, 송정, 송도, 광안리, 다대포  
부산 어디서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들이다.  
대부분 백사장을 끼고 있는, 즐기고 쉬기 위한 바다들이다.  
부산에는 그 외에도 조금은 다른 바다들이 있다.  
내 머릿속에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바라보는 부산 남항의 모습이 스친다.  
왼쪽 끝으로는 자갈치시장과 용두산이 보이고  
맞은편에 있는 영도의 조선소들과 남항대교 아래를 지나는 어선들이 보이는 바다.  
나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글을 쓰기 시작한 나에게, 바다는 영감의 원천이자 삶의 터전이다.  
생선을 잡고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가족들을 부양한 사람들에게 부산 남항은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충무동을 지나 송도 쪽으로 가다 보면 창문 없는 커다란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내 비릿한 냄새가 코를 스친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주변의 거리와, 거리 곳곳에서 풍기는 날 것의 이질적인 느낌. 일반인들은 선뜻 다가서기 쉽지 않은 동네의 모습이다. 낯선 풍경과 냄새의 주범이자, 전국 최대의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봄, 조부 대부터 해 오신 수산업을 이어가기 위해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다. 사실 그전까지는 창문 없는 커다란 건물과 공동어시장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어시장 바깥의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일반화된 바깥 세상과는 달리, 어선에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다. 달이 가장 밝은 시기인 매달 음력 14일부터 19일까지, 한 달에 단 6일만 쉴 뿐이다. 신선한 생선을 유통하는 것이 의무인 수산인들도 배들이 조업을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니, 자신의 시간을 황금같이 여기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유입될 일도 없다.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은 그 시간을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얼굴에만 남은 듯하다.

새벽에 조업을 마치고 제주에서 출발한 생선을 잔뜩 실은 어선들은 저녁 즈음 부산의 어시장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만, 이곳 어시장은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배에 실린 생선들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무장갑, '몸빼 바지' 그리고 생선을 선별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욕탕 플라스틱 의자가 이 시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 들이다. 쥐죽은 듯 조용하던 부산 남항 바다의 적막은 입학 후 쉬고 있던 어선들의 우렁찬 엔진소리와 함께 깨지고, 칙칙 같은 어둠은 어선과 어시장의 밝혀진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해진다. 이내 육지로의 하역이 시작된다. 어창 안의 생선들은 손수레로 옮겨지고 선별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으로는 생선이 쏟아진다. 오늘은 어떤 종류의 생선이 주를 이룰지, 크기는 어떨지, 선도는 어떨지, 작업자들의 시선은 쏟아지는 생선에 집중된다. 전국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을 통하는 만큼, 어시장을 메운 대부분의 생선은 고등어다. 그렇기에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언제나 고등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고무장갑으로 무장을 한 아주머니들은 쪼그려 앉아 생선을 종류와 크기별로 나눠 나무상자에 담기 시작하고, 분류된 상자들은 배열 작업자들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간다. 무게가 20kg이 넘는 생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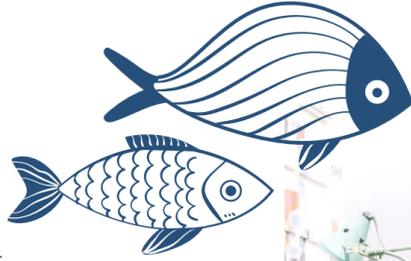
가득 담긴 상자들을 끌고 운동장같이 넓은 곳을 쉴 틈 없이 누비다 보면 계절은 무의미해진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닿아야만 하는 이 고된 작업은 밤새도록 계속된다. 선사 직원인 내가 하는 일은 선별을 지시하고, 중간중간 작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새어나가는 생선이 없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사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오히려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럴 때면 바다와 어시장에 깔려 있는 수많은 생선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주변에서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오기도 한다. 작업이 절반쯤 진행되면, 급식소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국통이 오토바이에 실려온다. 작업자들의 허기를 채워 줄 야식이 도착한 것이다. 식기들이 세팅되고 배식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길다란 줄이 늘어선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밖에 없지만, 한껏 땀 흘린 후 밤바다를 풍경 삼아 먹는 야식은 그 자체로 별미다.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입장 차는 있다. 꿀맛 같은 야식 타임이 작업자들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매시간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나와 같은 선사 직원들에게는 1분 1초가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허기를 달랜 후에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새벽 4시 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어시장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작업자들이 늘어나는 사람을 보며 시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경매사들은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인 6시가 되기 전에 그날 깔려 있는 생선들을 파악하여 경매가를 예상하고, 중매인과 상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생선을 찾기 위해 눈과 코, 손과 발을 총동원해 바쁘게 움직인다.

경매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경매 전까지 작업을 마쳐야 하는 작업자들의 손 또한 덩달아 빨라진다. 주변이 분주해질수록 나와 같은 선사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채 전투모드에 돌입한다. 선별 작업이 끝나고 아주머니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하면, 긴장이 극에 달한다. 밤새 유용하게 쓰였던 도구인 고무장갑과 목욕탕 의자가 마지막까지 생선을 은닉하는 도구로 둔갑하는 탓이다. 선사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생선을 지키기 위해 장착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매의 눈과 빠른 다리, 그리고 거친 입뿐이다.

지키는 자는 고작 두세 명에 불과하지만, 뺏으려 자는 백여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순간의 방심은 생선 유출로 이어지기에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무사히 생선을 지키는 일을 완수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매를 기다린다. 장시간의 기다림 끝에, 바다의 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다. 오늘은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잡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소식은 순식간에 어시장으로 퍼지고 밤에 들어올 배들의 작업 일정이 잡힌다.

밤 동안 어둠을 밝히던 어선과 어시장 내의 불빛은 저 바다 너머 떠오르는 붉은 태양에 자리를 내어준다. 이와 함께 밤새 선별 작업을 마친 야간 작업자들도 주간 작업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긴다. 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나면, 드디어 경매가 시작된다. 처음엔 외계어 같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경매사들의 외침과 중매인들의 수신호가 위판장을 가득 메우고 낙찰 결과에 의해 달라지는 상인들의 표정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하지만 그 또한 잠시뿐, 오늘 좋은 물건을 사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한, 생선은 다시 이곳을 가득 메울 것이고 경매는 또 열릴 테니까.



경매가 끝나면 낙찰받은 물건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물건을 싣기 위한 트럭들이 어시장 안을 수없이 들락날락할 쯤이면, 생각이 많아진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생선들이 무참히 차들에 밟히고 갈매기나 파리의 먹이가 되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생선들도 하나의 생명임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때쯤씩 도로 위에 죽어 있는 고양이나 개 등 다른 동물의 사체를 마주할 때면, 미간이 찌푸러지며 마음이 좋지 않지만, 밟힌 고등어의 모습에선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생선도 따지고 보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사체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마도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서 그들을 마주한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와 같은 특정한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지, 가끔은 두렵다. 한편으로는 바닥에 버려진 생선들을 놓고 파리와 갈매기가 펼치는 경쟁, 그리고 먹이를 쟁취한 후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죽음이란 한 존재로서의 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죽음이란 것도 크게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 때,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이지 않을까.'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업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는 건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뜻이다. 대부분은 저녁 전에 끝을 맺지만, 어획량이 적을 때는 오전 내내 끝나기도, 많을 경우에는 밤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작업이 끝나면 청소가 시작된다. 바닥에 널려 있는 것들을 강한 수압으로 날려버리면, 새벽에 현장으로부터 출발한 배들이 하역을 위해 저 멀리서 하나둘씩 입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잠시간의 고요함이 스쳐갈 틈도 없이, 선박의 고동 소리는 또 다시 어시장을 깨운다. 🐟



# TO BUSAN

## 매일 스며드는 여름

글·사진 신혜선 (싱가포르로 간 부산너)



아직도 싱가포르 교환학생 시절의 내 모습이 생생하다. <여미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 '앤드리아', 혹은 화려한 미드 속 '그들'처럼 멋진 삶을 살겠다며 '싱가포르 드림'을 품은 채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때. 어디서 본 것이라 꼭 베이글과 팬케이크를 먹어야 한다며 - 그걸 굳이 왜 동남아에서 찾았는진 모르겠지만 - 허세 부리던 시절. 하지만 영화는 '영화'였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였으며 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꿈꾸던 외국 생활은 이랬다. 상쾌한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모금과 크림치즈를 골고루 퍼 바른 토스트 한 입.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공부하는, 제법 폼나는 교환학생의 모습.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도서관 창문 위로 돌아다니는 게코(새끼 도마뱀)에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일쑤였고, 쏟아지는 스콜(열대성 소나기)에 우비, 우산으로 중무장해도 흠뻑 젖는 전쟁 같은 등굣길에 내 앞에 닥친 진짜 현실이었다.

아, 그리고 현지 친구들과 대낮에 골목길 걷다 마주한 버버리맨이



선물한 트라우마까지(물론 부산에서 여름, 여고를 다니며 단련된 내게 큰 치명타는 아니었다).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내가 꿈꾸던 외국 생활의 환상을 깨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싱글리시(싱가포르와 잉글리시를 합친 단어)'라는 싱가포르식 영어 방언은 부산 사투리처럼 어딘가 투박하고 독특한 악센트가 있어 소통조차 하기 힘든 상황. 싱가포르 유학생생활을 통해 뉴요커처럼 영어를 구사하겠다는 꿈은 일찌감치 접을 수밖에 없었고, 6개월이 지나도록 친구들과의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고된 유학생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고개만 끄덕이며 멍하니 듣기만 하는 내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알아들을 때까지 천천히 말해주고 했던 소중한 친구들의 존재였다.

큰 목소리와 거친 말투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싱가포르가 내 고향 부산과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준 고마운 이들이었다. 내가 유학길에 오를 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부산보다 작은 코딱지만 한 나라로 홀로 떠난다며 내가 느낄 외로움을 항상 걱정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기저기 갈 곳도 많았다. 한 학기 동안 싱가포르 곳곳을 누볐음에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싱가포르는 넓고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뒤에도, 싱가포르가 계속 아른거렸다. 늘 함께였던 친구들이 그리워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수같이 쏟아지던 스콜조차도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싱가포르에 대한 향수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급기야는 내 기숙사 방까지 침입했던 새끼 도마뱀마저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점점 건디기 힘들어진 나는 결국 싱가포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정겹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 그대로지만, 나는 신분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테면 나는 요즘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가끔 TV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한 외국인 패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온 싱가포르 학생들 -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알고 있는 - 은 종종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 다정하고 로맨틱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잘 마셔?', '한국 아주머니들은 진짜 무서워? 왜 항상 화만 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럴 땐, 내가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도 된 것처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내 대답이 곧 그들에게 한국의 남성이고, 여성이며 한국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테니까.

어느덧 싱가포르에서 지낸 지 3년여, 주변인들은 내게 받은 한국 사람, 받은 싱가포르 사람이라며 농을 던지곤 한다. 아마 내가 이 나라에 잘 정착했다는 뜻이리라. 여전히 한국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하루하루 더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름을 좋아하는 내게는 이곳의 폭폭 찜고 습한 날씨가 딱이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쏟아지는 스콜에서는 이제 낭만을 느낀다. 문득 '야, 개안타!'며 나를 위로하던 부산 친구들이 그리울 때면, 이곳의 친구들은 '오케이 라~ 돈 워리 라~'는 싱글리시로 날 토닥인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이제 나는 싱가포르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낀다. 싱가포르에 스며드는 만큼 또 한 뼉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 나의 스콜, 게코, 싱글리시... 그 다음 내게 다가올 또 다른 싱가포르의 매력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

부산에 오기 전 많은 고민을 했다. 8년 전에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부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막상 부산에서 살아보니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곳 생활에 몹시 만족하고 있다. 물론 어려움 없이 늘 행복하게 산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나의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언어장벽 때문에 여러 오해를 받았고 억울함이 쌓이기도 했다. 부산은 여러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부산 시민과 외국인들이 사이가 좋고 서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바라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기도 하다.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기본 좋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에 가는 길이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너 혹시 외국인이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라고 물어보셨다. 우리 엄마랑 통화하는 모습을 보셨던 모양이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기분이 좋아 웃으면서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게 "너는 베트남이 못 살아서 이 나라에 와서 사나?", "맛다. 얼마나 못 살았기에 여기 와서 살지?"라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꼭 참았다. 그런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후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굳게 내 가슴에 새겨졌다. 한국말이 유창하지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으면 계속 무시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가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나는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준 분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분들은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유학해서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내 고민과 내가 받은 상처에 그 누구보다도 공감해줬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나도 너처럼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 그렇지만 사람은 한자리에 계속 있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 언젠간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인생도 그래. 힘내라."

그 말을 듣자,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운이 났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에서 잘 살려면 그 나라의 말을 먼저 잘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다문화센터에 열심히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고, 힘들 때나 포기하고 싶을 때는 "못 할 일이 없다. 하고 싶으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을 되뇌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지금은 분명 그때보다 많이 발전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한편 부산에 온 지 8년 만에 나는 꿈을 이루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레인보우다문화체험 강사파견사업을 통해 다문화체험강사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나 문화센터에 방문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많이 출강한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서, 나와 정말 잘 맞는 직업이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늘 설레고 행복하다. 다문화체험강사로 활동하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쌓였다. 아이들에게 베트남에서 왔다고 말하면, 선생님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수업이 끝나면 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돌아가느냐는 질문을 빼먹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내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기도 한다. 그야말로 재미있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말 의미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필리핀, 중국, 일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대한 경험을 주고받으며 나의 세상이 더 넓어짐을 느낀다. 아직도 일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딸이 엄마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하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오랜 꿈도 이곳 부산에서 이뤄졌다.

현재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대담한 교수님과 정성껏 도와주는 선배들 덕분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부산을 사랑한다. 나는 요즘 꿈이 하나 더 생겼다. 그건 바로 부산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과 박물관, 산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정말 부산을 사랑하게 되었나 보다. 가끔 부산을 떠나 멀리로 떠나있을 때면 이곳이 그리고 아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게 사랑 아닌가? 부산의 바다내음과 파도소리, 부산의 역사의 흔적이 남긴 골목과 친근한 사투리까지, 이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한다. 힘들 때 친한 친구들과 광안리해수욕장의 백사장에 마주 앉아,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즐기는 맥주 한잔과 수다를 사랑한다. 인생에 대한 고달픔을 나누고 함께 바람에 실려 보낼 좋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부산은 그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삶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피울 사랑의 땅이다. 부산아 사랑한다!" ☺



## 부산- 나의 제2인생



글·사진 BÙITHU HÀ 부미 투 하  
한글이름 김현아  
(베트남에서 온 부산너)

# FROM BUSAN

# 어느 날 갑분예? 갑자기 분위기 예술가



## 문화기획자, 뮤지션으로 변신하다.

지난 3월 경성대 인근 복합문화공간 노드에서는 'KEEP ON MOVING'이라는 타이틀의 레게 공연이 열렸다. 부산 유일의 레게 밴드 해피피플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이 공연은 부산이라는 지역에 레게 음악과 문화를 전파하고자 시도된 공연으로, 밴드 스카웨이커스의 리더보컬 정세일이 '내 이름은 로스코'라는 타이틀로 선보이는 솔로 공연과 서울의 레게 밴드 콤파겐즈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각각각색의 개성이 묻어난 공연들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해피피플의 공연은 아마 몇몇 사람들에게는 꽤나 당황스러운 퍼포먼스였을지 모른다. 뮤지션들에게 이따금씩 전화를 해서 '이번 달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섭외를 요청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하던 사람. 공연이 끝나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며 "빠른 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늦은 처리를 하고야 마는 게으른 담당자. 부산대나 경성대 몇몇 라이브 클럽 문 앞에서 공연이 끝난 뮤지션들과 담배를 나눠 피며 멋쩍게 웃던 남자. 그가 해피피플의 라이브믹싱 멤버 'BIGSWEAT'으로 소개되며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분리되어 일정한 경계를 가져야 하고,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씬(Scene)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던 치기 어린 문화기획자는, 그렇게 예술가와 기획자 사이의 낯선 틈새로 기어오르며 진입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런저런 공연을 다니며 만나는 담당자들의 가웃거림은 여전히 나를 당황스럽고 낯선 상황으로 몰아넣곤 한다. 나는 '문화기획'으로 부산의 문화예술과 연을 맺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다. 무대 위에 오르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내 역할임을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뮤지션이구나. 나이 서른에 밴드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엄마는 말씀하셨다. "니가?" 시작은 단순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시기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듯 과로한 업무와 반복되는 생활패턴으로 말미암아 지치는 순간이 왔다. 지친 몸이 부정적인 생각을 동반하고, 이는 곧 일상의 무료함으로 발전해 급기야 업무에



송정 보헤미안 키친에서 디제잉하는 이대한(위)  
'KEEP ON MOVING' 해피피플 밴드 공연(아래)



지장을 주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취미'를 새로 가져보자는 결심을 하던 차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평소 행사에서 일로 만나던 DJ에게(지금은 그 누구보다 아끼고 존경하는 형이 되었다.) 수업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디제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선곡'이다. 최신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손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대가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선곡하고 선보이는지에 따라 DJ의 개성이 드러난다. 음악 선곡이 중요한 DJ의 특성상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모으고 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당시 내게 가장 많이 남아있던 음악들이 바로 '레게'였다.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을, 새로운 취미를 가짐으로써 새로 알게 된 셈이다. 마침 부산에는 레게 음악을 선곡하는 DJ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디제잉 스승인 DJ 김프로(Kimpro)는 레게 DJ로서 음악을 선곡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수업이 이어지면서, 나는 더욱 레게라는 장르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후 퇴사를 결행함으로써 얻은 여유를 행사 참여와 DJ 역할로 채워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평소 멤버들과의 인연으로 친하게 지내던 레게 밴드 '해피피플'이 당시 준비하던 무대에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언빌리버블! 이할 수가!



## 해피피플? 해피엔딩? 어쨌든 해피!

레게에는 덤(Dub)이라는 장르가 있다. 음향장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소리들을 섞거나 빼는 과정을 통해 기존 곡을 완전히 다른 곡으로 바꾸기도 하고, 믹싱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강조하고 싶은 소리를 크게 키우거나 여러 효과들을 함께 넣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계를 사용해서 음악에 '장난'을 치는 거다. 보통은 음악을 다 만든 이후 믹싱을 할 때 버전(Dub Version)을 따로 만들지만 최근에는 음향장비의 발전으로 이러한 믹싱을 라이브로 선보이는 무대도 생겨나고 있다. 해피피플은 라이브로 덤 무대를 꾸미기를 원했고, 마침 옆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을 바라보던 내게 권한 것이다. 퇴사 후의 여유가 지루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한번 하고 말거라 생각했던 걸까. 해피피플의 제안을 덜컥 수락해버렸고 한 달간의 연습 끝에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공연은 다행히도 무사히, 아주 무사히 마쳤다. '재미'만을 쫓았던 한 달이었다. 많이 지쳐 있었고, 그간 쌓인 피로를 털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내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쏟아내며 즐겁게 작업했다. 공연이 끝난 후 뒤뚱이 자리에서 당시 새롭게 팀을 구성하고 있던 해피피플은 내게 정식으로 그룹 활동을 제안했다.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레게 음악을 이해하며 '노느라 시간이 아주 많았던 나'는 그렇게 '뮤지션'이 됐고, 크고 작은 무대를 함께 누비며 순수한 '재미'를 쫓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내 모습과 이 순간을 과연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내가 '해피'하다는 것이다. 거창하게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삶을 위한 선택지가 적은 지방에서, 나만의 예술영역을 넓히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일을 일상처럼 일상을 일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다 싶다. 기획자와 예술가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주장도 부끄럽지만 철학을 해야 할 것 같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편협하지 않은 다양한 시선을 가진 한 명의 뮤지션으로 앞으로 살아보려 한다. 부디, 밴드 해피피플의 Bigsweat과 축제감독 이대한을 많이 응원해주시길. 🙏

# 두산, 진혁, 호경, 찬욱 씨의 이중생활 두두디박스 카페&팝 운영자 4인을 만나다

인터뷰:글 공지훈 사진 하영문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두산** 안녕하세요, 정두산입니다. 본 직업은 기계 회사 엔지니어입니다. 두두디박스에서는 독서모임 및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미있고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혁**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브랜딩, 그래픽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두두디박스에서는 전반적인 디자인 관련 업무와 맥주 관리, 맥주모임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경**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경입니다. 무역/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두두디박스에서는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욱** 무역 회사를 다니면서 두두디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동하고 책 보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싶은 허찬욱입니다.



정두산

마음 맞는 직장인 4명이 모여 함께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당초 시간상의 제약을 탈피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는 잘 실현되고 있나요?

**모두**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욕심만큼 잘 안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꾸준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산문화재단과 청년문화공간 컨테츠 우리집 앞 놀이터'를 시작으로 '책과 와인'이 있는 오프 위 두두디박스 기획을, 2018년에는 '부산관광공사 봄 여행주간 책처방 힐링 콘서트'와 '민음사 in 부산 팝업스토어 북캉스' 기획을 통해 '책과 함께하는 새로운 휴가 콘텐츠', '영도 M마켓 책처방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수영구청 평생교육원 현대인의 책임' 강연을 진행했고 현재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책처방콘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서모임, 영어모임, 맥주모임 등 멤버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두두디박스는 부산 내 작가들이 무료로 전시공간으로 쓸 수 있게 상시 운영되는 중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관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더 많은 이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고자 최근 약 한 달간의 모집기간을 통해 일반조합원 8명을 모집했고, 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은 앞으로 더 기수 형태로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두두디박스의 '책 처방'이라는 개념이 독특합니다. 두두디박스가 고전 서적을 주로 다루는 점을 감안하면, 책방지기의 독서량과 내공이 상당할 것 같아요.

**두산** 매일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랫동안 널리 읽히고 있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전을 읽는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철학과 경향이 담겨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고전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 속의 인문학적인 철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고전과 가까워지는 독서모임을 진행해요. 개인적인 독서량은 평소 매달 최소 3권 정도로,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편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챍터씩 읽고, 리뷰를 기록해요. 또 온종일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책이 내 속에 남아 내게 영향을 주거든요. 개인적으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좋아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각자의 길과 깨달음이 존재한다는 내용인데,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얻습니다.

※ 책 처방 : 책방지기가 고민을 안고 있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30분간의 대화를 통해 알맞은 책을 추천해주는 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 처방' 사례가 있을까요?

**두산**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셔서 늘 감사해요. 그중에서도 심리치료를 받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공간의 책 처방과 독서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고마워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 때 한 권의 책과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가치를 새삼 실감했죠.



김진혁

사실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네 분처럼 이중생활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현실'과 '이상'의 틈새에 대해 조언해준다면?

**진혁** 욕심의 한계치, 이상의 한계치를 설정해두면 멘탈 관리에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려우니까, 때론 생각 없이 첫걸음을 질러보는 자세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호경**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최선을 다하되, 아닌 걸 알았을 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찬욱** 주변 분들이 '재밌겠다, 좋겠다. 나도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 무엇이든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행사를 하다 보면 예상 외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본업은 본업대로 가게 운영은 가게 운영대로 각각의 고민을 해결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중생활'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건 '이중생활'을 통해 얻어가는 행복감과 여유는 확실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다는 거죠. 충분한 고민 후에 하시길 권하고 싶어요.



이호경

이중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두산** 당장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금함보다는 본업이 아니기에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꿈을 잃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오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언젠가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혁** 전 단순화하려고 해요. 모임 운영을 '덕질을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진짜 일이 돼버리니까요.

**호경**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번 마음을 다잡는 편이고,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단순함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찬욱** 이 공간 자체를 '직업'이라는 개념과 연결짓지 않으려고 해요. 저만의 아티지트자 놀이터라고 생각하는거죠. 물론 매출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따금씩 가슴을 옥죄기도 하는데...(웃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을 벌기보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 또한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을 나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찬욱

마지막으로 두두디박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두산** 많은 분들이 두두디박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유지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공간이자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기획서점으로 거듭나서 문화생활을 위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에 더해 부산만의, 또 두두디박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진혁** 전 변화에 대한 거창한 목표나 욕심은 없어요. 이러한 공간운영과 문화기획활동을 통해 나 자신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재미있는 것을 많이 하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호경** 두두디박스를 방문했을 때,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마음의 휴식이든 다른 것이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며 내 삶 역시 다양한 것으로 채워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찬욱**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어떤 정량화된 목표보다 두두디박스를 통해 그저 행복하게 놀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유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행복하게 이곳을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전할 수 있으면 크게 바랄 게 없어요. 아 사실...매출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머쓱한 웃음)

**두두디박스?** 광안동에 위치한 책과 커피, 맥주와 모임이 있는 북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카페&팝, 그리고 다양한 문화기획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일상을 더 재미있고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부산 시내에 중국의 소리가 퍼진다!

삶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얼후의 선율 '소리연'

보통 '찰현악기'라고 하면, 한국의 해금과 몽골의 마두금을 떠올리기 쉽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국의 '얼후' 또한 대표적인 찰현악기 중 하나로 꼽힌다.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겠지만,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얼후라는 악기는 그리 낯설지 않다. 1990년대 전후로 일었던 중국 무협영화의 붐 속에서, 얼후의 소리와 가락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덕이다. 부산 지역에도 얼후와 같은 중국 민족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얼후·중국민족악기 동호회인 '소리연'이다. 11세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얼후가 좋아서 모인 그들이 어느덧 11번째 해를 맞았다.

"저희는 얼후라는 현악기를 주축으로, 다른 중국 민족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기보다 공연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리연 동호회명의 '연'자는 얼후의 소리가 흐른다(衍)는 의미와, 얼후의 소리를 통해 인연(緣)을 만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이들은 어쩌다 '얼후'라는 악기의 활을 잡게 되었을까?

"중국에서 얼후 연주 공연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한(恨)이라는 정서가 악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느낌을 받아 실제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얼후를 보며 '사람의 심장에 활질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거죠. 저 역시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실에 모여 기초 수업 및 공연 연습을 한다. 동호회는 대개 '유지'의 문제로 난항을 겪기 마련인데, 11년의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운영되는 비결을 물었다.

"악기(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악기에 '신기루', '남극성', '구양봉', '아우라', '남몽골' 같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중국 현지의 악기 제작사나 얼후 연주자 분들과의 교류도 많은 편인데, 이런 저희의 애정에 감탄하시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세요."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공존하지만, 한 번도 갈등이 없을 만큼 회원들 간의 우애가 상당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에 계셨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려나가야 한다'라는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결속력이 강해진 게 비결이 아닐까 해요."

회원들마다 얼후라는 취미를 갖게 된 계기가 다른 것처럼, 얼후를 다루면서 저마다 생긴 삶의 변화들이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

"얼후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좋아하게 돼서 악기를 2년째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도 생각하는 등 삶을 대하는 방식과 자세도 바뀌어, 지금은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 멤버]

동호회 대표 이진희

얼후 연주자 이정선, 류미영, 박세훈

영상 및 사진 촬영 우정욱

인터뷰 글 권혁제

사진 권혁제, 부산문화재단 제공



"얼후 자체가 중국 악기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악보, 영상 등의 자료를 중국어로 접할 일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가을에는 축제가 많아 공연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2, 3일가량을 이어서 할 때도 있다고 한다. 바쁜 공연 일정 속에 말 못할 어려움과 속사정은 없는지도 들어봤다.

"가끔 한국이 아닌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악기네', '저런 문화도 있구나' 하는 흥미와 관심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즐기기에 활동으로 공연을 합니다. 때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연 동호회가 바쁜 공연 활동으로 얼후를 알려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얼후라는 악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연 동호회는 인터뷰를 통해 공연과 악기에 대한 부산 시민의 관심이 조금 더 커지고, 어우러짐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함께라서 행복한 그들의 얼후 연주 소리가 부산 지역 곳곳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그리고 소박한 그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



# 河僉知 하침지 견문록 見聞錄

글·사진 하영문, 이보라

나는 생전에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다네. 점포를 두고 장사를 할 형편은 못 되었지만 팔 것을 나귀에 싣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쓰일 만한 것들을 팔곤 했다. 내 한창 일을 할 적에는 나라를 뺏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장사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 전 재산은 노름으로 탕진하고 장사할 밑천이라도 마련해볼 요량으로 그나마 있는 나귀까지 한성은행에 담보로 잡혔는데... (나귀를 담보로 받아준 것은 참으로 의외긴 했다.) 결국 장사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객사해버렸지 뭐냐. 내 성불을 거부하고 뒤늦게라도 나귀를 찾아야겠다 싶어 한성은행으로 돌아와 놀러왔지. 거 그리고 보니 벌써 100년이 되었구먼.

이미 다들 눈치챌겠네만, 나는 세상을 뜬 지 백 년 가까이 된 사람이라네. 아니 귀신이라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백 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이 건물이 변하고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봤지. 다시 인사 함세, 나는 바로 역사의 산...아니지 '죽은' 증인 하옥춘일세.



리모델링 전 청자빌딩

나귀를 담보로 맡겼던 이곳 한성은행은 처음 생겼을 적부터 40여 년간은 은행이었다네. 처음에는 단층 건물이었다가, 서력으로 1964년이 됐을 때 3층짜리 건물로 덩치가 커지며 '청자빌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다방도 되었다가, 지업사도 되었다가 그랬는데 또 반세기가 지났구먼.



1918년 한성은행 외관

그러다 몇 해 전인가...이 건물을 흔적도 없이 헐리네 마네 그랬는데, 내 망자 주재지마는 집을 잃는다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나지 않았겠나. 다행히도 후손들이 철거를 반대해준 덕에 내 아직 여기 남을 수 있었다네. 그러다 아마 부산시에서 이 건물을 사들였는지? 몇 년 기별이 없다가 어느 날 하도 시끄럽게 똑딱거리길래 귀동냥을 해보니, 여기를 부산생활문화센터로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부르기를 '한성1918'이라고 하더구만.

내 100년을 여기 머무르며 별의별 꼴을 다 보았네만, 요즘만 하겠나 싶어. 내 비록 죽은 몸이라 훔쳐볼 뻔이지만, 보지만 해도 재미지다니까? 뭐가 그리 재미있냐고? 자네들 내 얘기 한번 들어보겠나?

1920년대 중반 한성은행 부산지점 주변 전경



## 10:30 ~ 11:30



### #카페

내 살았을 적부터 사람 구경을 좋아했다네. 해서, 한성1918의 문이 열리는 시간부터 1층 카페 청자 벽화 앞 소파에 앉아 가배 한 잔에 사람 구경하는 게 요즘 내 낙이지.

## 11:30~13:00

### #청자홀



어릴 적 내 기억에... 한성은행이 들어서기 전에 여기가 해안선 경계면이었는데... 이렇게 멋들어진 공간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뽕밭이 파랗게 된 게지. 무슨 말이나고? 이런 무식한... 아, 상전벽해 몰라? 뭐 아무튼, 여기가 공간만 멋진 게 아니라 말일세. 이곳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마다 그... 유우치크 스튜디오라나 뭐라나. 아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부산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미리건(미국) 가락까지 나온다니까. 이 동네 전문 악사가 매번 이 노래~ 저 노래~ 틀어대는데,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

## 13:00 ~ 13:30

### #리안

여기가 이제 좀 알려졌는지, 주말까지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져. 여기 일하는 직원 중생들이 요즘 고생이 많다네. 내 사실 매일 한 번씩은 운동 삼아 걸어 사무실에 들르거든. 내 이 중생들이 애처로워서 응원하달라고 엉덩이를 흔들며 제게는데, 아마 직원들은 모를거야 그지? 껄껄~ 음... 희한하게 방귀 냄새는 맡는 것 같더니만... 뭐 아무튼, 들르거들랑 직원 중생들 응원 좀 하고 가시게.



## 14:30 ~ 16:00

### #커뮤니티룸



예로부터 천고마비 하면 독서하지 않던가. 비록 살아 생전에 책이라고는 점이에 담장에서 주운 야사 한 권이 다지마는, 내 요즘 다독하고 있네. 아 정말이야, 한성1918의 모든 책이 여기 있는데, 살았을 적엔 책 냄새가 이리 좋은지 몰랐지 뭐냐. "나도 여기서 민원용 컴퓨터로 유튜브를 검색하는 차가운 도시 남정네요~" 조선 사람이 요새말을 써 썼는지 궁금하다고? 어허, 이거 왜 이래. 내 자네보다 요새말을 더 잘 알걸?

## 16:00 ~ 17:00

### #교육실



책을 덮고 교육실에 초량왜관 연구회의 수업이 있다 하여 자리에 앉아보았네. 어릴 적에는 아부지 따라 고기 낚으러 가고, 다 커서는 물건 팔러 돌아다니느라 배우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어. 뭐가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니까. 귀신이 배워서 뭐하나 싶겠지만, 종종 동네 귀신들이랑 모이던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을 듣는대네. ㄱㄹㅇ

## 18:00 ~ 19:00

### #양요농부



몸도 찌뿌드드하니 신선한 공기나 맡아볼까. 옥상정원은 한성에서 내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일세. 아 글썬 이만 여름 상반기 '한성1918' 일상 때 여기 풀장이 설치됐었지 뭐냐. 내 남몰래 몸 좀 적셨지. 해질녘 빨강게 물든 중앙동 골목의 점포들을 둘러본 감성에 찾아버렸...! 밤에 해 지면은 옆 건물 귀신들이랑 종종 루분넌 파티도 하고 그래. 내가 차도남이거든. 종종 날 좋고 그러면 별도 보이는데, 저 앞 건물 할망구가 낭만적이거나 뭐래나... 아, 밤만 되면 옆자리를 차고앉는다니까? 저 뒤에 부산타워 보이지? 앞에 저건 영도 바다야. 요새말로 숨은 뽕도 슻맛인 게지.



\*한성1918 일상: 지난여름 하루 동안 부산 생활문화동아리, 예술단체가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내 공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기획하여 선보였다. 행사는 '피크닉존', '전시', '체험', '공연' 등 4개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3층 옥상정원에서 진행되는 피크닉존은 해변 카페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 방문자들에게 무료 음료를 함께 휴식 공간을 제공한 행사.



내 허기나 좀 달래볼까 냉장고를 뒤적거리라 공유식당에 올라왔네. 공유식당은 한성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을 내놔도 되거든.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종종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곤 하지. 오거들랑 거 뒷정리는 잘 해놓고 가 주시게~ 냉장고 구석에 처박힌 저건 뭐야? 유통기한 지난 요플레네. 내가 한성에 담보잡힌 나귀 같은 신세로구먼... 창문 너머로 소깃적 함께 달리던 내 반려나귀 생각이 눈에서 뺨물이 나네 그려.

## 19:30 ~ 21:00



### #마루방

여긴 생활문화동아리나 무용, 연극, 전통춤, 합창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후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네. 거 하는 사람이 많나 보더구만. 연습공간을 찾아 여기저기를 떠도는 모양이던데, 여기 오고서는 깨끗하고 저렴하다고 그렇게나 좋아하지 뭐냐. 청자홀이랑 여기만 빌려주는 게 본데, 직원 처자 말로는 요새 대학생 수강신청보다 빨리 마감된다...최근에는 일본 전통 춤 요사코이 공연단 '부산기병대'가 이용 중인데, 거울이 뿌연게 변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아주 열정적이란 말이지. 거 나도 소싯적엔 저릴 때가 있었는데, 좋~을 때로구나!

## 21:00 ~ 22:00

### #음악실

병아리 같은 조명에, 무늬 달린 커튼, 옛날 달력과 시계. 뉴우트로 감성이 뽕뽕하는 여기가 바로 어디나 짜잔~ 음악실이라네. 어찌다 보니 음악실을 뽕토스튜디오로 꾸며 뒀는데, 매주 토요일에는 단돈 만 원에 필름카메라도 빌려주고 현상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해줘. 쫓쫓, 이 좋은 곳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구먼. 요즘 말로 거 '인싸'들이 좋아할 만하네 아닌가? 필름카메라 들고서 중앙동부터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을 쭉욱 가로지르면, 아 그게 '핵인싸'까지지 뭐냐? 선선해지는 가을엔 다크 포토투어도 한대네. 어여 서두르시게!



## 22:00 ~ 23:00



### #안방

여기 공방에서는 내썬할 스튜디오라고도 하면 심기, 공기정화 식물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같은 친환경 공예 수업들이 매달 열리더군. 내 옆에서 시침질 좀 해봤는데, 아가지기 하니 재미더구만. 여기가 원래 칙칙했는데 말이야. 여기 한성 직원들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뒀네. 직원 후손님들 고요ampus~

## 23:00 ~ 24:00 #나온테라스



하루 종일 쫓달대며 돌아다녔더니 피곤하구먼. 우리 초록이들 보러 가야겠어. 아, 소개를 안 했나? 오 바로 옆에 예쁜 화분에 나란히 놓인 것들이 한성이, 두성일세. 봄에 내썬할 스튜디오 할 때 심어 둔 아로니아인데, 혼자서도 아주 잘~ 자란다네. 요즘들이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니 설렌단 말이지. 사실 여기 초록이들이 쑥쑥 크는 이유는 미하원 선생 덕이야. 그리고 이젠 비밀인데 저기 저 나무는 밀감나무라네. 왜인지 직원 중생들도 밀감나무라는 사실을 몰라. 아직은 초록이지만 초겨울 즈음이면 탐스런 주황빛깔로 변하지. 무성히 커가는 초록이들처럼 이 공간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겠지. 김치국 드링크이지만 북적거리면 피곤한대. 껄껄. 오늘 하루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지런히 돌아다녔구먼. 아직 동광동 어귀의 빨간 벽돌 건물이 생활문화센터인지 잘 모르는 후손님들이 많을 것이요. 앞으로 지켜 볼 일이지만 매년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 기대해 보시구려. 내 오늘 귀신 주제에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 몹시 즐거웠소. 이만 눈 좀 붙이려 들어갈터이니, 근처 지나갈 일이 있거든 놀러들 오시오. ㄱ

발행일 2019.10.29.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하경희 기획 하영문, 이보라 편집실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2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발간인 강상현 편집책임·에디터 공지훈 인터뷰·에디터 권혁제 편집디자인 정현실 별지디자인 윤상미

